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11인	재적위원수	11인
------	-----	-------	-----

- 일 시 : 2024.04.12.(금) 10시
- 장 소 : 대구예술대학교 제1예술관 2층 회의실
- 위원 출석현황

구분	참석	불참석	참석의원	불참의원
위원	8명	3명	이근배, 백진우, 이상직, 김성기, 김성원, 김종문, 정영주, 박종수	김성준, 한지수, 이혁화

4. 안건

- 제1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결산(안) 자문
- 제2호의 안 : 학칙 개정(안) 심의 : 학과(전공별) 입학정원표 개정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위원 11명 중 8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 '의장'이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나. 안건 심의

□ 제1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결산(안) 자문

- 제안설명

- '의장'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간사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경과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법인결산 감사가 2024.4.2.~4.4.까지 있었다고 하며, 2023 회계연도 결산금액은 등록금회계가 5,183,921천원으로 예산금액과 32,603천원의 차이가 있었고, 비등록금회계는 4,178,123천원으로 예산금액과 315,497천원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다. 그리고,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현황으로는 등록금 회계 이월금액이 662,521천원으로 작년대비 -1,179,113천원이고 비등록금 회계 이월금액이 1,669,283천원으로 작년대비 92,015천원이라고 하다. 참고로 등록금 회계 수입은 3,342,286천원으로 몇 년간 계속 감소하는 중이라고 하다. 결산 세부내역은 사무처 김도현 팀원이 설명하겠다고 하다.
- '김도현'팀원이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역 자료를 기본으로 수입 및 지출의 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의장'이 의원들에게 논의 및 질문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비등록금회계의 교원 급여는 어떤건지 질문하다.
- '김도현'팀원이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의 강의료가 주 라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평생교육원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질문하다.
- '김도현'팀원이 수입은 7,3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5,600만원 정도라고 하다.

서명	이근배	백진우	이상직	박종수
----	-----	-----	-----	-----

- '김종문'의원이 국제교육원도 수입 대비 지출을 할거라 예상되는데 학교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국제교육원에 회계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하다.
- '의장'이 2023회계연도 결산 자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김종문'의원의 동의와 '김성기'의원의 재정이 있어 '의장'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2호의 안 : 학칙 개정(안) 심의

- 제안설명

- '의장'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간사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학칙 별표1 2025학년도 학과별(전공별) 입학정원표 개정과 관련하여 경과사항으로 교육편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를 논의했고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다고 하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세 변경사항을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이상직'의원이 지금 학교가 신입생총원율도 저조하여 사정이 어려운데 굳이 지금 국제학부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간사'가 가장 큰 이유는 대학재정적인 면이 크다고 하며, 현재 대학 사정상 정원 내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년에 100단위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기에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하는 국제학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다. 참고로 지역 대학들은 대학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23회계연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10억이하로 되면서 지금까지 대학재정을 버티게 해준 미사용차기이월자금도 한계에 다다른만큼 교비회계의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고 이를 외국인유학생 유치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총입학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냐고 질문하다.
- '간사'가 외국인유학생과는 상관이 없고 국제교육원의 외국인 여학연수생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국제학부에 소속된 학과들을 보면 우리 대학에서 운영했었던 전공들도 있고 한데 이들 학과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학과들이데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학과들 중에 우리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학과들로 구성을 하였고, 내년에 유학생이 입학한다면 1년간은 공통과목과 한국어 수업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동남아라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될 거 같은데 이곳의 평균임금이 낮는데 우리 대학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하며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목표에 못미치게 모집을 하면 일년만에 그만두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다.
- '간사'가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집이 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다시 조사해서 현재 학과들을 수정하거나 신설 학과를 생성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입학 후 1년간은 최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할려고 한다고 하다.

서 명	이근배	백철우	이성직	박종숙
--------	-----	-----	-----	-----

- ‘백진우’의원이 학칙 개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언제 공고한 것인지 질문하다.
- ‘간사’가 4.4.부터 4.10.까지 했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학칙 개정은 공론화를 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맞다고 하다. 각 전공에 배정되어 늘어난 입학정원을 보면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편제조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공이 모집중지 대상 전공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학교운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다. 그리고, 평가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국제학부에 정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회화작가전공은 이번에 2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하다. 기획처장님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다.
- ‘김성원’의원이 국제학부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국내 내국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기에 정원을 1명만 두고 정원 외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규정이며 국제학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먼저 국제교육원 운영을 통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운영노하우를 쌓았고 특히 지금까지는 중도탈락을 관리에 성공했기에 가능성을 엿봤었고 작년 올해에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많은 분들과 만남을 가졌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현재의 학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그냥 돈을 내고 올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4년간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각 나라의 기관들과 MOU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노력을 하는 본부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다. 그리고, 총입학정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300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술대학교를 보면 우리보다 정원이 적지만 100% 충원을 함에도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우리 대학에 적용하면 우리가 정원을 줄인다면 같은 상황이 올 것이기에 무조건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도리어 대학운명을 안하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뒤에 투자 등을 통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하고, 이번 개정으로 각 전공에 배정된 입학정원은 교육편제조정위원회에서도 무리한 인원배정이고 전공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왔음을 위원들이 알고 있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기획처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거 같고 예전에는 이런 학칙 개정(안)을 2개이상 만들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일안으로 올라온걸 보니 그렇게 안이 없었는가 한다고 하다. 의견수렴기간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다.
- ‘정영주’의원이 대교협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이 있고 교육편제조정 평가항목에 4.1일자 자료가 들어가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합리적으로 할려면 국제학부에 인원을 늘리고 다른 전공의 인원을 줄여야 하고 이렇게 각 전공에 인원을 증원한 것은 모집중지를 할려는 의도라고 하다. 그리고, 모집중지 규정도 모호하게 창작융합에 술전공은 1년만에, 스포츠지도전공은 2년만에 모집중지를 하고 회화작가전공은 2명밖에 못받았는데 유지되고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다.
- ‘간사’가 규정상 설명을 하자면 편제 미완성 전공은 편제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교육편제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교육편제조정대상 전공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다. 그리고, 언급하신 1~2년만에 모집중지한 전공들은 재학생 수가 0명인 전공들이었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입학정원이 증원된 전공들이 학생을 신입생 유치에 실패하면 교육편제조정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모집중지 시킬 수 있는거냐고 하다.

서 명	이근배	백진우	이상직	박종석
--------	-----	-----	-----	-----

- ‘간사’가 지난 5년간 매년 신설전공을 만들어 왔으나 성공한 전공이 사실상 없고 어떤 전공을 신설해야 할지 확신도 없는 상태이며 전공을 신설했다가 금년도 회화작가전공처럼 학생이 들어온다면 그 학생들이 전과를 원하지 않는 한 4년간 전공을 운영해야 하기에 이번 개정에는 신설전공이 없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내년엔 지금 있는 전공들이 신입생을 정원만큼 모집을 못할텐데 이 전공들을 모집중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하다.
- ‘간사’가 내년엔 교육편제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공고한 기간이 너무 짧고 우리가 의견을 낸들 학교에서 그 의견을 받아주겠냐고 하며 평의회에서라도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하다.
- ‘간사’가 의원님이 하신 말 중에 정원내 입학정원을 국제학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전용학과를 만들 수 없고 그렇기에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원내 입학정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그 이상의 입학정원을 넣는 것은 그 숫자만큼 입학정원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이 개정(안)의 문제는 전공을 모두 모집중지를 하고 학교운명을 안하겠다는 의도에 있는 것이라고 하다.
- ‘간사’가 교육편제조정위원회에는 내년엔 모집을 하는 전공들의 교수님들이 모두 계셨고 위원들도 전공별 입학정원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다.
- ‘의장’이 심의의 목적에는 구성원들이 안건을 알고 의견을 내는 것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며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서 전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정영주’의원이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4.30.까지 변경사항에 대해 대교협에 요청을 못하면 3년전에 공시한 대로 내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애니웹툰학부의 인원은 149명이고 디자인학부가 다시 살아나야 형식으로 모집을 해야 한다고 하다. 그렇기에 일정상으로 4.30.전까지 이사회를 하고 일주일동안 변경사항에 대해 전공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4.30.까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대교협에서 심의해서 결과통보를 받고 5월부터 모집요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일정을 미루면 우리는 변경사항이 없이 기존의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우리가 논의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에 남겨주기를 요청하다.
- ‘김종문’의원이 기획처에서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시기를 좀 당겨서 2월이나 3월에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줬으면 한다고 하다.
- ‘정영주’의원이 전공 개설과 같은 의견수렴은 있어야 한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국제학부의 학과들의 교원들은 정해진 것인지 질문하다.
- ‘간사’가 학과별 교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다.
- ‘의장’이 학칙 개정 건을 원안대로 의결은 하지만 논리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백진우’의원의 동의와 ‘김종문’의원의 재청이 있어 ‘의장’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서 명	이근배	백진우	이상직	박종수
--------	-----	-----	-----	-----

6. 의결사항

제1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며 논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다.

- 논의사항

가. 교육편제조정과 같은 학칙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기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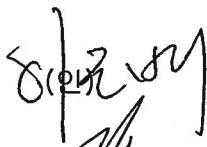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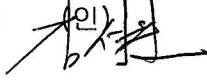



나. 현재 입학사정에 비해 전공별 인원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7.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의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장이 가부를 묻어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4. 04 12.

참석인원	의장	이근배		의원	백진우	
	의원	김성기		의원	이상직	
	의원	김성원		의원	김종문	
	의원	정영주		의원	박종수	
				작성자	김광진	